

환경권 수호의 길목에서



이 경 식
〈국립공원협회 회장〉

친애하는 대의원 및 회원 여러분!
특히 국립공원사랑과 자연에 대한 외경심을 바탕으로 공원 일선에서 헌신하고 계신 협회 지부 대의원과 회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가운데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국립공원관리공단 임직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어느덧 새 봄이 움트는 계절입니다.

그러나 안팎의 상황은 전혀 봄의 훈기를 느낄 수 없이 추운 겨울 분위기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국제통화기금(IMF) 한파가 그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 모든 어려움을 기필코 이겨낸다는 각오와 결의 아래 슬기와 힘을 모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런 때일수록 우리 협회 회원들의 사심없는 봉사와 기여가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국립공원은 인류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마지막 환경자산이자 영원하고 소중한 문화유산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국가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이 국민의 행복한

삶을 증진시켜주는 복지사회에 있다면 그것은 곧 국민 모두가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인간다운 품위를 지키면서 살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숨쉬는 공기는 맑아야 하고, 우리가 마시는 물은 깨끗해야 하며, 우리가 먹는 음식물은 안전해야 합니다.

이같은 시각에서 우리 헌법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이며 생존을 위한 절대권일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누려야 할 인권인 환경권을 명문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리를 위한 사회적 제도와 그 권리를 지킬 국민적 의식은 아직 확립되어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우리 국립공원협회 회원들의 말은 바 책무는 이러한 환경권의 제도와 인식을 바로 잡는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국립공원 사랑은 참으로 중요하고 소중한 문화활동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보존하는 일은 국가나 공공단체를 비롯한 각계 각층 모든 국민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협회 대의원

을 비롯한 모든 회원들은 이런 자연 사랑의 최일선 첨병이자 감시인이기도 한 것입니다.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해 우리 협회는 많은 난관을 헤쳐나가며 큰 도약과 발전을 이룩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국립공원사랑을 위한 자연자원의 조사연구와 홍보, 계도, 자연공원 학술세미나, 국제자연관계기관과의 교류협조 및 유대강화, 청소년교육 및 탐방활동 등 어느 것 하나 소홀하지 않았습다.

특히 협회 창립이래 초유 최대규모로 열렸던 「국립공원문화제전」은 우리 국립공원 운동사에 있어 획기적인 도약의 터전을 마련한 성공적인 기회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들은 회원 모두의 결속과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부분적인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협회를 보다 대국적인 조직으로 확대 발전시키고 국립공원사랑운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합의를 극대화하는데 힘써야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들의 자원봉사 체제

를 보다 활성화하고 다양화, 체계화해야 하겠습니다.

국립공원 사람은 궁극적으로는 자연자원 보호와 환경보존의 과학화내지 선진화를 통해 국립공원문화의 터전을 확립해 나가자는 정신계도운동의 일환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항상 강조하듯이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것은 맹목적인 자연보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우리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보호받고 혜택받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여기서 대두되는 문제가 보존과 이용이라는 두 측면의 합리적 모색입니다.

이는 국립공원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모든 국가들의 공통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1990년대 이후 자연환경에 대한 관심제고로 국립공원에 대한 문화적 인식과 함께 국립공원의 관리정책도 「보존과 이용의 조화」에서 「보존을 전제로 한 이용」으로 전환되고 모든 생태자원보호 위주의 재정

투자 등이 이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같은 흐름속에서 우리 협회도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꾀해야 될줄로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는 30년 가까이 전개되어 온 조직력을 더욱 확대 공고히 하고 대국민 홍보, 교육계도의 강화, 학술연구, 지부간 교류증진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운동을 더욱 활발하게 전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총회에 상정된 제반의결사항에 대해 진지한 협의와 토론과 심의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국립공원협회가 올 한해도 전국민적인 공원사랑과 자연보호의 튼튼한 구심체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뜻깊은 총회를 계기로 더욱 분발하여 협회의 무궁한 발전과 도약의 터전을 다져 나갈 것을 기원합니다. ㄴ

이번호 「말씀」은 지난 2월 26일 하오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개최된 협회 제27차 총회에서 있었던 이경식회장의 개회사 전문으로 했다.